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38장 다같이

1. 해지는 저 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2. 해지는 저 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3. 해지는 저 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4.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시편 23편 6절 인도자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설 교 “선포의 영성”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명절 기간 중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3. 교회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포의 영성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신뢰의 시이다. 본래 신뢰의 시편은 탄원시와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을 부름, 탄식, 간구와 신뢰확신, 그리고 찬양으로 구성된다. 이 다섯 요소 가운데 신뢰가 독립적인 형태로 확장되고 발전되어 신뢰의 시가 되었다. 저자는 고난의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며 확신과 서원을 한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선포로 끝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5절에서 찾아온 일시적인 손님이 너무 좋아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 눌러 살겠다고 한다. 내면의 고백이 선포로 표현되며 이것은 주인과 3인칭, 전체 공동체에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데, 이 성품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두 성품은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선하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인자하심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 ‘추격한다’는 이 뜻은 군사용어로 부정적 느낌의 단어이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했다. 선함과 인자하심은 양들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양치기 개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거룩한 경호원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를 따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다윗은 평생 살아온 길이 이러한 은혜의 길임을 고백하고 내가 사는 날과 영원한 날에도 계속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다윗은 깨달았다. ▶날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를 추격하는 은혜의 그림자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라. 내 뒤에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내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표지다.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여호와와 집이다. 세상은 임시 처소이고, 하늘 본향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이다. 본향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한다. 고향을 멀리 떠나왔으면서도 향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나그네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 또한 슬픔이다. 본향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시편 23편은 얼핏 보면 공동체성이 부족해 보이고 한 개인의 영성 같다.

그러나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의 확고한 개인적인 체험에서 공동체를 지향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이처럼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웃에게 증거가 된다. 한 개인에서 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증언의 사역을 이루자. 이것이 곧 전도이고 전도는 곧 자기 간증이다. 시편 23편은 곧 영적전쟁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확증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탄이 무서워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